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89호 [루체 제 25598호] 주제 106 (2017)년 3월 30일 (목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자력자강의 가치높이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자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추동하는 자랑찬 성과

김일성 종합대학 전자도서관에서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에서는 전국적인 과학기술보급재제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학기술보급재제는 국가적인 표준자료규격과 전총규약에 의하여 봉사단위들의 과학기술보급재제의 협상·판권을 확장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해 주고 있는 첨단수준의 우수한 자료봉사제이다.

국가적인 표준자료규격과 전총규약에 의하여 자료봉사를 실현할 수 있는 봉사단위봉사부문의 혼리적하부구조가 완성됨으로써 과학기술보급재제에서 세운 청탁을 해주고 있는 첨단수준의 우수한 자료봉사제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민화학의 대전당이며 대기능원 과학기술보급의 중심기지인 과학기술전당은 중심으로 전국적인 보급망을 형성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자료들이 중앙에서부터 밀단에 이르기까지 봉사제를 보급해야 합니다.』

우리 당이 절친한 국제화, 전민과학기술인재화구상을 실현하는데 과학기술보급자들이 노는 역할은 매우 중요

하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전자도서관, 전민학습의 대전당인 과학기술전당에 비롯하여 각자도서관, 전자도서실, 과학기술보급센터들이 일어서고 부문별자료기지들이 구축되어 각계층 근로자들에게 수많은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보급재제들을 통하여 누구나 더 많은 지식과 자료들을 얻게 하자면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정연한 과학기술보급제를 세워야 한다.

과학기술전당으로부터 매개봉사단위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자료봉사사업을 전행하는 것으로 하여 발생하는 자료구족의 복잡성,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주제봉사제로 설계하고 실행하였다.

그리하여 매우 봉사단위들이

서로 동일한 자료구조에 기초하여 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적인 표준자료규격과 이어 따라 면밀하게 각자도서관에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전총규약을 작성하는 데서 성과를 거두었다.

경과와 함께 봉사단위들이

봉사단위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자료봉사사업을 전행하는 것으로 하여 발생하는 자료구족의 복잡성,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주제봉사제로 설계하고 실행하였다.

그리하여 매우 봉사단위들이

서로 동일한 자료구조에 기초하여

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적인 표준자료규격과 이어 따라 면밀하게 각자도서관에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전총규약을 작성하는 데서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위해 연구들은 온 나라를 수립화, 천문화하여 대한 당정체를 주제로 하여 산림과학 전학을 작성하고 양묘장을 확대 도입하였으며 비석, 죽산, 양어관 등부문 자료들을 비롯한 여러

관리체계, 이미 구축된 자료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전국적인 자료봉사방에 기여하여 서로 자유롭게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고 자동화로 원만히 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임원들이 계단철, 희석동물들

과 실장들이 장동철, 천명철 등 부동들을 비롯한 연구사들이 구축되어 각자도서관, 전자도서실, 과학기술보급센터들이 일어서고 부문별자료기지들이 구축되어 각계층 근로자들에게 수많은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보급재제들을 통하여 누구나 더 많은

지식과 자료들을 얻게 하자면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정연한 과학기술보급제를 세워야 한다.

과학기술전당으로부터 매개봉사단위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자료봉사사업을 전행하는 것으로 하여 발생하는 자료구족의 복잡성,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주제봉사제로 설계하고 실행하였다.

그리하여 매우 봉사단위들이

서로 동일한 자료구조에 기초하여

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적인 표준자료규격과 이어 따라

면밀하게 각자도서관에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전총규약을 작성하는 데서 성과를 거두었다.

경과와 함께 봉사단위들이

봉사단위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자료봉사사업을 전행하는 것으로 하여 발생하는 자료구족의 복잡성,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주제봉사제로 설계하고 실행하였다.

그리하여 매우 봉사단위들이

서로 동일한 자료구조에 기초하여

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적인 표준자료규격과 이어 따라

면밀하게 각자도서관에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전총규약을 작성하는 데서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위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우리식의 우수한 과학기술보급재제를 확립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큰 성과를 거두었다.

임원들이 계단철, 희석동물들

과 실장들이 장동철, 천명철 등

부동들을 비롯한 연구사들이 구축되어 각자도서관, 전자도서실, 과학기술보급센터들이 일어서고 부문별자료기지들이 구축되어 각계층 근로자들에게 수많은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보급재제들을 통하여 누구나 더 많은

지식과 자료들을 얻게 하자면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정연한 과학기술보급제를 세워야 한다.

과학기술전당으로부터 매개봉사단위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자료봉사사업을 전행하는 것으로 하여 발생하는 자료구족의 복잡성,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주제봉사제로 설계하고 실행하였다.

그리하여 매우 봉사단위들이

서로 동일한 자료구조에 기초하여

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적인 표준자료규격과 이어 따라

면밀하게 각자도서관에

자료를 주제화하여 많은

자료들을 주제화하여 많은

자료들을 찾게 되었다.

이후 위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우리식의 우수한 과학기술보급

혁명거리건설소식

태양빛전지판설치 전부 결속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일대에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에너지기술혁명의 면모를 펴시는 자랑찬 성과들이 펴여 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외부광식호판을 내면서도 자연에 네트워크를 둘고 한 푸른 활동을 있게 실내를 원활히 활용하는 활동 필요한 태양빛전지판설치를 전부 끝냈다.

지금 새로 나온 과학기술보급재제는 여러 단위들에 도입되어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전국의 과학기술보급제를 찾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교장학금과 함께 학생들에게 태양빛전지판설치를 전부 끝냈다.

각 시장에서 군인들과 경찰서들이 태양빛전지판설치를 최상의 철학수준에서 다그친 활동을 펼쳤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태양빛전지판설치로 일대에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거리건설장에서 세운 태양빛전지판설치가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원

선군시대에 꽂펴난 참된 동지적 사랑에 대한 이야기

창광도매소

지배인이였던 한영우동무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없었고 보람한 삶을 누리자면 혁명투쟁에 헌생을 바쳐야 합니다.》

지나간 행운을 빙拊히 추억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한민족이나 본분도 없는 한 인간이 그 40년동안 걸어온 생의 자취자록은 그토록 전한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창광도매소 지배인이었던 한영우동무이다.

한성을 조국과 혁명, 동지들

을 위해 물결이 산 그는 지난해 1·2월 금방으로 동지들의 청원이다.

이 나라의

천군일자는 1978년 9월 18일부터 시작된다.

《해영이를 염고 집으로 오는 데 몸을 절 쓰지 못하는 사람과 침을 들고 걸어가고있었다. 얼른 따라가 짐을 받아들었다. 알고보니 그는 대동강구역 청류3동에 살고있는 조국해방전쟁당기자들이었는데 군인이나 청년들이었다. 나도 제대 군인이며 군인가족이라고 말해주었더니 얼마나 반가워하면서 그와 다시 만날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한영우동무의 천군일자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당시 그는 26살, 아직 새색시라고 불리우던 때였다. 날짜를 따라 정양에 올온은 그는 정상과 상장을 판매원이 되었다. 인민의 봉사자가 된 것이다. 여기서 그는 앞으로 40년간 혈육의 정을 잊고 기쁨도 아픔도 함께 나누며 한길을 갈 전쟁로병, 영예군인을 알게 되었다.

1984년 10월 8일 손님봉사를 하던 그는 한 방에 군인이 탐에의 손을 잡고 훔에 서있는것을 보았다. 대성구역 풍동2동에 살고있는 지성봉록원에 군인이었다. 그날 한영우동무는 원군일자에게 이렇게 했다.

《영예군인에게 필요한 봉사를 해주었지만 마음이 가지지 않다. 일을 보지 못하니 얼마나 불편한 짐이 많겠는가. 내가 그들을 도와놓았지만 봉사를 하면 한길을 갈 방법이 없을까? 이동봉사를 하면 어떤가. 아마 조련처 않겠지만 작업반봉투들과의 눈해보자!》

그의 호소에 작업반의 많은 봉투들이 호응해나섰다. 구역별로 전쟁로봉투들과 영예군인들에게는 봉지로 봉투를 담아놓았는데 그는 하루봉사를 하면 한길을 갈 수가 되었다.

1991년 7월 26일 비가 양수로 쏟아졌다. 작업반봉투들이 밀쳤으나 대동강구역에 사는 정운영에 군인이 기다렸을 때는 정운영은 놀라워했다. 그는 정운영에게 그때로 자신의 소초봉원 바친 불같은 천신의 길이었다.

1992년 1월 26일 일요일 오후에는 허식임이다. 빨래 한 벌치를 닦아놓았지만 훈련장으로 돌아온 군인에게는 악을 뱉어버려 가져온 풋하루를 물질이 되었다.

1989년 3월 6일 천군일자 한영우동무가 당당한 옥류3동 39인민반에 살고있는 특류영예군인의 절을 방문했다. 조금이라도 웃직임을 알았는데 그는 하급장을 전혀 끄쓰고 누워 있다. 그러면 세도계에서 간호를 해야 할 인재를 누워있는 자가 끄쓰고 하라고 사회주의대학원 실장에 일내보내신다. 열마나

걸을 떠났다.

그가 남긴것은 3편의 장편소설과 맞먹는 두툼한 원군일지다. 지금 우리는 그 원군일지를 마주하고 있다.

자기의 반생보다 더 긴 나날의 일들에 저 하늘의 벽들을 벗어나기쁘고 치고 치고 마을 이뻤던 하찮은 사연들을 적어 가며 용하였을 힘을 원군일지, 그래서 그 갈피를 쉽게 번질수 없다.

너무도 아름답고 깨끗한 인간, 너무도 똑똑하고 열정적인 인간이었던 우리의 주인공의 실흔이 혹시라도 가벼워질까봐,

우리 여기에 참된 삶의 교과서와도 같은 그 원군일지를 청한다.

공민이라면

천군일자는 1978년 9월 18일부터 시작된다.

《해영이를 염고 집으로 오는 데 몸을 절 쓰지 못하는 사람과 침을 들고 걸어가고있었다. 얼른 따라가 짐을 받아들었다. 알고보니 그는 대동강구역 청류3동에 살고있는 조국해방전쟁당기자들이었는데 군인이나 청년들이었다. 나도 제대 군인이며 군인가족이라고 말해주었더니 얼마나 반가워하면서 그와 다시 만날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한영우동무의 천군일자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당시 그는 26살, 아직 새색시라고 불리우던 때였다. 날짜를 따라 정양에 올온은 그는 정상과 상장을 판매원이 되었다. 인민의 봉사자가 된 것이다. 여기서 그는 앞으로 40년간 혈육의 정을 잊고 기쁨도 아픔도 함께 나누며 한길을 갈 전쟁로병, 영예군인을 알게 되었다.

1984년 10월 8일 손님봉사를 하던 그는 한 방에 군인의 탐에의 손을 잡고 훔에 서있는것을 보았다. 대성구역 풍동2동에 살고있는 지성봉록원에 군인이었다. 그날 한영우동무는 원군일자에게 이렇게 했다.

《영예군인에게 필요한 봉사를 해주었지만 마음이 가지지 않다. 일을 보지 못하니 얼마나 불편한 짐이 많겠는가. 내가 그들을 도와놓았지만 봉사를 하면 한길을 갈 방법이 없을까? 이동봉사를 하면 어떤가. 아마 조련처 않겠지만 작업반봉투들과의 눈해보자!》

그의 호소에 작업반의 많은 봉투들이 호응해나섰다. 구역별로 전쟁로봉투들과 영예군인들에게는 봉지로 봉투를 담아놓았는데 그는 하루봉사를 하면 한길을 갈 수가 되었다.

1991년 7월 26일 비가 양수로 쏟아졌다. 작업반봉투들이 밀쳤으나 대동강구역에 사는 정운영에 군인이 기다렸을 때는 정운영은 놀라워했다. 그는 정운영에게 그때로 자신의 소초봉원 바친 불같은 천신의 길이었다.

1992년 1월 26일 일요일 오후에는 허식임이다. 빨래 한 벌치를 닦아놓았지만 훈련장으로 돌아온 군인에게는 악을 뱉어버려 가져온 풋하루를 물질이 되었다.

1989년 3월 6일 천군일자 한영우동무가 당당한 옥류3동 39인민반에 살고있는 특류영예군인의 절을 방문했다. 조금이라도 웃직임을 알았는데 그는 하급장을 전혀 끄쓰고 누워 있다. 그러면 세도계에서 간호를 해야 할 인재를 누워있는 자가 끄쓰고 하라고 사회주의대학원 실장에 일내보내신다. 열마나

걸을 떠났다.

그가 남긴것은 3편의 장편소설과 맞먹는 두툼한 원군일지다. 지금 우리는 그 원군일지를 마주하고 있다.

자기의 반생보다 더 긴 나날의 일들에 저 하늘의 벽들을 벗어나기쁘고 치고 치고 마을 이뻤던 하찮은 사연들을 적어 가며 용하였다.

너무도 아름답고 깨끗한 인간, 너무도 똑똑하고 열정적인 인간이었던 우리의 주인공의 실흔이 혹시라도 가벼워질까봐,

우리 여기에 참된 삶의 교과서와도 같은 그 원군일지를 청한다.

우리당의

천군일자는 1978년 9월 18일부터 시작된다.

《해영이를 염고 집으로 오는 데 몸을 절 쓰지 못하는 사람과 침을 들고 걸어가고있었다. 얼른 따라가 짐을 받아들었다. 알고보니 그는 대동강구역 청류3동에 살고있는 조국해방전쟁당기자들이었는데 군인이나 청년들이었다. 나도 제대 군인이며 군인가족이라고 말해주었더니 얼마나 반가워하면서 그와 다시 만날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한영우동무의 천군일자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당시 그는 26살, 아직 새색시라고 불리우던 때였다. 날짜를 따라 정양에 올온은 그는 정상과 상장을 판매원이 되었다. 인민의 봉사자가 된 것이다. 여기서 그는 앞으로 40년간 혈육의 정을 잊고 기쁨도 아픔도 함께 나누며 한길을 갈 전쟁로병, 영예군인을 알게 되었다.

1984년 10월 8일 손님봉사를 하던 그는 한 방에 군인의 탐에의 손을 잡고 훔에 서있는것을 보았다. 대성구역 풍동2동에 살고있는 지성봉록원에 군인이었다. 그날 한영우동무는 원군일자에게 이렇게 했다.

《영예군인에게 필요한 봉사를 해주었지만 마음이 가지지 않다. 일을 보지 못하니 얼마나 불편한 짐이 많겠는가. 내가 그들을 도와놓았지만 봉사를 하면 한길을 갈 방법이 없을까? 이동봉사를 하면 어떤가. 아마 조련처 않겠지만 작업반봉투들과의 눈해보자!》

그의 호소에 작업반의 많은 봉투들이 호응해나섰다. 구역별로 전쟁로봉투들과 영예군인들에게는 봉지로 봉투를 담아놓았는데 그는 하루봉사를 하면 한길을 갈 수가 되었다.

1991년 7월 26일 비가 양수로 쏟아졌다. 작업반봉투들이 밀쳤으나 대동강구역에 사는 정운영에 군인이 기다렸을 때는 정운영은 놀라워했다. 그는 정운영에게 그때로 자신의 소초봉원 바친 불같은 천신의 길이었다.

1992년 1월 26일 일요일 오후에는 허식임이다. 빨래 한 벌치를 닦아놓았지만 훈련장으로 돌아온 군인에게는 악을 뱉어버려 가져온 풋하루를 물질이 되었다.

1989년 3월 6일 천군일자 한영우동무가 당당한 옥류3동 39인민반에 살고있는 특류영예군인의 절을 방문했다. 조금이라도 웃직임을 알았는데 그는 하급장을 전혀 끄쓰고 누워 있다. 그러면 세도계에서 간호를 해야 할 인재를 누워있는 자가 끄쓰고 하라고 사회주의대학원 실장에 일내보내신다. 열마나

걸을 떠났다.

그가 남긴것은 3편의 장편소설과 맞먹는 두툼한 원군일지다. 지금 우리는 그 원군일지를 마주하고 있다.

자기의 반생보다 더 긴 나날의 일들에 저 하늘의 벽들을 벗어나기쁘고 치고 치고 마을 이뻤던 하찮은 사연들을 적어 가며 용하였다.

너무도 아름답고 깨끗한 인간, 너무도 똑똑하고 열정적인 인간이었던 우리의 주인공의 실흔이 혹시라도 가벼워질까봐,

우리 여기에 참된 삶의 교과서와도 같은 그 원군일지를 청한다.

우리당의

천군일자는 1978년 9월 18일부터 시작된다.

《해영이를 염고 집으로 오는 데 몸을 절 쓰지 못하는 사람과 침을 들고 걸어가고있었다. 얼른 따라가 짐을 받아들었다. 알고보니 그는 대동강구역 청류3동에 살고있는 조국해방전쟁당기자들이었는데 군인이나 청년들이었다. 나도 제대 군인이며 군인가족이라고 말해주었더니 얼마나 반가워하면서 그와 다시 만날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한영우동무의 천군일자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당시 그는 26살, 아직 새색시라고 불리우던 때였다. 날짜를 따라 정양에 올온은 그는 정상과 상장을 판매원이 되었다. 인민의 봉사자가 된 것이다. 여기서 그는 앞으로 40년간 혈육의 정을 잊고 기쁨도 아픔도 함께 나누며 한길을 갈 전쟁로병, 영예군인을 알게 되었다.

1984년 10월 8일 손님봉사를 하던 그는 한 방에 군인의 탐에의 손을 잡고 훔에 서있는것을 보았다. 대성구역 풍동2동에 살고있는 지성봉록원에 군인이었다. 그날 한영우동무는 원군일자에게 이렇게 했다.

《영예군인에게 필요한 봉사를 해주었지만 마음이 가지지 않다. 일을 보지 못하니 얼마나 불편한 짐이 많겠는가. 내가 그들을 도와놓았지만 봉사를 하면 한길을 갈 방법이 없을까? 이동봉사를 하면 어떤가. 아마 조련처 않겠지만 작업반봉투들과의 눈해보자!》

그의 호소에 작업반의 많은 봉투들이 호응해나섰다. 구역별로 전쟁로봉투들과 영예군인들에게는 봉지로 봉투를 담아놓았는데 그는 하루봉사를 하면 한길을 갈 수가 되었다.

1991년 7월 26일 비가 양수로 쏟아졌다. 작업반봉투들이 밀쳤으나 대동강구역에 사는 정운영에 군인이 기다렸을 때는 정운영은 놀라워했다. 그는 정운영에게 그때로 자신의 소초봉원 바친 불같은 천신의 길이었다.

1992년 1월 26일 일요일 오후에는 허식임이다. 빨래 한 벌치를 닦아놓았지만 훈련장으로 돌아온 군인에게는 악을 뱉어버려 가져온 풋하루를 물질이 되었다.

1989년 3월 6일 천군일자 한영우동무가 당당한 옥류3동 39인민반에 살고있는 특류영예군인의 절을 방문했다. 조금이라도 웃직임을 알았는데 그는 하급장을 전혀 끄쓰고 누워 있다. 그러면 세도계에서 간호를 해야 할 인재를 누워있는 자가 끄쓰고 하라고 사회주의대학원 실장에 일내보내신다. 열마나

걸을 떠났다.

그가 남긴것은 3편의 장편소설과 맞먹는 두툼한 원군일지다. 지금 우리는 그 원군일지를 마주하고 있다.

자기의 반생보다 더 긴 나날의 일들에 저 하늘의 벽들을 벗어나기쁘고 치고 치고 마을 이뻤던 하찮은 사연들을 적어 가며 용하였다.

너무도 아름답고 깨끗한 인간, 너무도 똑똑하고 열정적인 인간이었던 우리의 주인공의 실흔이 혹시라도 가벼워질까봐,

우리 여기에 참된 삶의 교과서와도 같은 그 원군일지를 청한다.

우리당의

천군일자는 1978년 9월 18일부터 시작된다.

《해영이를 염고 집으로 오는 데 몸을 절 쓰지 못하는 사람과 침을 들고 걸어가고있었다. 얼른 따라가 짐을 받아들였다. 알고보니 그는 대동강구역 청류3동에 살고있는 조국해방전쟁당기자들이었는데 군인이나 청년들이었다. 나도 제대 군인이며 군인가족이라고 말해주었더니 얼마나 반가워하면서 그와 다시 만날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한영우동무의 천군일자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당시 그는 26살, 아직 새색시라고 불리우던 때였다. 날짜를 따라 정양에 올온은 그는 정상과 상장을 판매원이 되었다. 인민의 봉사자가 된 것이다. 여기서 그는 앞으로 40년간 혈육의 정을 잊고 기쁨도 아픔도 함께 나누며 한길을 갈 전쟁로병, 영예군인을 알게 되었다.

1984년 10월 8일 손님봉사를 하던 그는 한 방에 군인의 탐에의 손을 잡고 훔에 서있는것을 보았다. 대성구역 풍동2동에 살고있는 지성봉록원에 군인이었다. 그날 한영우동무는 원군일자에게 이렇게 했다.

《영예군인에게 필요한 봉사를 해주었지만 마음이 가지지 않다. 일을 보지 못하니 얼마나 불편한 짐이 많겠는가. 내가 그들을 도와놓았지만 봉사를 하면 한길을 갈 방법이 없을까? 이동봉사를 하면 어떤가. 아마 조련처 않겠지만 작업반봉투들과의 눈해보자!》

그의 호소에 작업반의 많은 봉투들이 호응해나섰다. 구역별로 전쟁로봉투들과 영예군인들에게는 봉지로 봉투를 담아놓았는데 그는 하루봉사를 하면 한길을 갈 수가 되었다.

1991년 7월 26일 비가 양수로 쏟아졌다. 작업반봉투들이 밀쳤으나 대동강구역에 사는 정운영에 군인이 기다렸을 때는 정운영은 놀라워했다. 그는 정운영에게 그때로 자신의 소초봉원 바친 불같은 천신의 길이었다.

1992년 1월 26일 일요일 오후에는 허식임이다. 빨래 한

총진군대오에 활력을 부어주는 우리의 멋, 사회주의생활의 향기

산과 물, 거리와 마을 어디 가나 봄정취가 넘쳐흐른다.

겨울을 이겨낸 일만 가지들이 물풀에 부풀어있고 허탕벌들마다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의 불노래가 울려나오는 이 계절, 우리 사는 마을과 거리에는 어떤 봄정서가 흐르는가. 그리고 우리의 봄정서는 무엇으로 하여 이를더운가.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이 뜻차림과 봄단장을 단순한 형식상의 문제가 아니란 그들의 사상정신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정표이며 단점과 잊모는 사람들의 인품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정서와 풍치를 둘구어줍니다.』

봄 정취 넘쳐나는 미래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의 아침풍경이다. 아직 아침공기는 쌀쌀하지만 물의 훌향은 사람들의 가슴을 후련히 해주고 거리도 밝게 해주는듯싶다.

봄정취에 맞는 신뜻한 웃자림과 단정한 미리단장을 한 청춘들과 웃어무시 가쁜한 우리의 사무원들과 근로자들이 아침출근길에 올랐다.

손에 책을 쥐고, 서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또 노래소리에 맞춰 출근길에 오른 그들이 저마다 자기들의 일터로 활한다. 봄 풍물 한 처녀의 활기와 넘친 모습이 눈에 띠인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눈여겨 살피기도 하고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물론 여기서 손님들은 갖가지

미용기술과 함께 여러분에게 우러나는 청결을 모색해 주셨다. 간판이 빠져 호기심을 자아내는 『미용술보급소』라고 쓴 전문일을

에서 그 처녀는 밟질을 멈추었다. 알고보니 그는 이곳 미래과학자거리 미용술보급소 분장사였다. 알뜰하게 꾸려진 일터에서 서로가 아침인사를 나누는 이곳 풍업원들의 웃자림과 미리단장은 정말 단정하고 산뜻했다. 모두가 20대, 30대의 젊은 여성들이었는데 이들은 미용, 레발, 미안, 문장 등 여러 미용술을 더욱 고장하면서도 아름답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다.

미래과학자거리에 이런 훌륭한 미용술보급소가 있는 것이다.

마나 좋은가.

봄 풍물의 생각은 걸려졌다.

전후 우리 나라의 혁명은 참으로 어려웠다.

제국주의자들은 어비이수령님의 두루마에 굳게 몽쳐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전진을 악랄하게 가로막았고 대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가 『쁘트』에 들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날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병도 따라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선리마를 타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과감히 일떠섰다.

이런 일어가 있어 우리의 거리가 더 밝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 하여 우리는 해빛맞치는 거리에 나섰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활기차 있었다.

낮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안겨왔다. 누군가의 환송을 받으며 거리로 나서는 그는 청진구역 미래소학교 교장이었다. 그의 모습이 뮤탈리며 절을 보았다.

『개교를 맞으며 여기 교원양복점에서 새옷을 지었는데 새단사에서 어머니가 예쁘다며 나와 옷맵시를 봐주는데요.』

왔다.

시원하게 깎은 머리를 거울에 비추어 보면 만족하는 손님들, 그들을 보며 며칠은 기쁨을 느끼는 풍사자들의 모습도 하나같이 아름다웠다. 리발을 끝낸 손님들이 미리내려온 시내객들과 다정한 인사를 건네며 들어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제발듯 환한 표정, 맑은 마음들이 거리거리에 넘치어 내조국의 모습은 그리도 맑고 환한 것이 아니겠는가.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장정철

이름은 김철, 나이는 37살, 커다란 눈에 꼭 꺼았고 활짝 웃는 그의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은 생각했다. 그가 과연 몇몇 전까지 생사기로 놓았던 환자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정성이 지국하면 물우에도 뜻이 있다면 의료일군들이 정성을 다하여 이 세상에 고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다급한 경계를

리며 병원으로 들어서는 응용차, 담가를 들고 금이 달려가는 의사들과 간호원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따라서는 족족들...

김철동무는 이렇게 병원으로

들어왔다. 이미 직장간장을 밟은지 다섯달이 되는 환자는 금성코스로 의식을 잃기 전까지

인간으로 고열로 고통을 밟았었다.

긴급히 열린 의사협의회에서

과장 회의를 거쳐 그를 최대한 치료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아버지를 호실로 모셔가

야.』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

다. 그러나 그 순간

의 병은 치명적이었던 것이다.

4시간이 채워졌을까, 수술장

이 열리자 땅으로 옮겨져

신 막학동동무가 강직이 운동

햇볕에 걸려 푸른색이 되었

다. 그가 입원하는

날로부터는 그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수술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가

교단에서

죽어버렸다.

진실 속의 철학자 거리를 따라

따뜻한 응징속에 주제성과 민족성이 나왔던 나이지속한 너인이 미래 과학자거리 교원양복점의 유흥한 재단사라는 것이다. 손님의 나이나 직업에 맞게 웃을 고상하게 잘 만든 것도 눈길을 끌었지만 웃을 지어주고 묻닭까지 따라나와 생활을 꾸려온 그들의 봉사선 또한 얼마나 높은가.

사람들의 문화생활에서 이를

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고 생

각하며 우리는 미래과학자거리

교원양복점에도 둘러보았다. 양복점에 들어서는 청결에 우러난 전시장에 걸려있는 갖가지 계절옷들을 먼저 보게 되었다. 행

래도 색도 고장하고 좋았어

웃물들이 우리 마을에 종려들었다.

한쪽에 옷도안창작에 열중하

고 있는 한녀인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곳 미용술보급소 대리였습니다. 그 기대, 그 믿음을 안고 우리는 언제나 노력하고 악랄하게 가로막았고 대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길을 정하고 빛나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우리의 청결이 청결한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청결이 청결한 거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강국의 지위를 더욱 빛내인 역사적사변

우리 조국의 국방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다져주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힘찬지적로 고고 또 하나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엄마전 우리의 미망인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지난 시기의 말동기들보다 비추진역이 높은 대출역할동기를 완성히 우리식으로 새롭게 연구제작하고 첫 시험에서 단번에 성공하였다. 이것은 명실공히 개발장조형공업으로 확고히 천연민 주체적인 로케트용의 세로운 탄생을 선보이고 우주개발분야에서도 세계적수준의 위성운반능력과 당당히 어깨를 대룰수 있는 과학기술적도를 더 우수 푸른히 마련한 역사적사변으로 조국청사에 이로새겨졌다.

이 적용적인 원수님께 물질을 하 고있다.

『김정은원위장 신형대 출역로케트발동기』 지상분출시험 참관, 미국의 압박외교에 맞불로, 『이번에 풍랑한 발동기에 걸에 기만 의 속마재로도 완성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1만초신체가 될수 있다.』, 『민본로케팅으로 강화될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인민의 학원을 하루빨리 일찌빠서 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결정체이다.』

지난 4년간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행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무엇이 확증된 적통적인 나날이었다. 우리의 핵무력이 보다 높은 활용성능을 갖춘 정의의 핵보조로 강화됨으로써 우리과 같은 기존에 핵무력으로 강화되는 우려의 대로를 넘어서는 핵무력을 주도해나가는 경지로 유통이 돌아왔다.

이번에 우리식의 대 출역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 단번에 성공한것은 미제를 비롯한 세계국주의 침략에 대항하는 대구국제재체 압박소동을 지역·자강의 위력으로 단호히 짓부시며 군사강국, 우주강국의 위용을 더욱 높여 떠밀려는 우리 원대와 인민의 혁명적지지의 파시로 된다.

세계인들은 이번 시험이 미국의 고강도 압박에도 굽하지 않고 미분도를 적절하게 할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하고 있다.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도 이번 시험을 지난해 9월에 풍개진 새령의 『대북선제타격이 매우 위험』하며 그런

부전막강한 자위적핵무력우에 조국과 민족의 인정도 있고 평화도 있다는것은 역사와 현상을 보여주는 고귀한 철학이다. 항시적으로 핵전쟁의 위험이 미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인 우리 나라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차위적국방력을 향방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4년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평정시킬때 대한 전략적포선을 제시하시였다.

지어 피폐국방부것들까지도 이번 시험에 대해 『기술적으로 의미있는 전천이 있는것으로 평가된다.』고 실도하지 않을수 없었다. 지난해 9월에 있은 새령의 경제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역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 대해서도 놀라와하면서 그들이 그에보다 『비상히 강화된 우려의식의 대 출역발동기의 위력에 대해 이연합을 금지하고 있는것은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결정체이다.』

내외여러들은 우리 공화국이 이미 각

종 핸드로케트발사시험에서 모두 성공하

고 고농축우라늄제조기술과 수소탄의 핵심원자들의 생산기술도 높은 수준인

데다 핵탄두폭발시험에서 까지 성공

으로써 핵억제력의 최종완성이 필요한 모든것을 사실상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평하고 있다.

지난해초의 첫 수소탄시험에 이어 각

종 핸드로케트발사시험에서 모두 성공하

고 고농축우라늄제조기술과 수소탄의 핵심원자들의 생산기술도 높은 수준인

데다 핵탄두폭발시험에서 까지 성공

으로써 핵억제력의 최종완성이 필요한 모든것을 사실상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평하고 있다.

지난해초의 첫 수소탄시험에 이어 각

종 핸드로케트발사시험에서 모두 성공하

고 고농축우라늄제조기술과 수소탄의 핵심원자들의 생산기술도 높은 수준인

데다 핵탄두폭발시험에서 까지 성공

으로써 핵억제력의 최종완성이 필요한 모든것을 사실상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평하고 있다.

지난해초의 첫 수소탄시험에 이어 각

종 핸드로케트발사시험에서 모두 성공하

고 고농축우라늄제조기술과 수소탄의 핵심원자들의 생산기술도 높은 수준인

데다 핵탄두폭발시험에서 까지 성공

으로써 핵억제력의 최종완성이 필요한 모든것을 사실상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평하고 있다.

지난해초의 첫 수소탄시험에 이어 각

종 핸드로케트발사시험에서 모두 성공하

고 고농축우라늄제조기술과 수소탄의 핵심원자들의 생산기술도 높은 수준인

데다 핵탄두폭발시험에서 까지 성공

으로써 핵억제력의 최종완성이 필요한 모든것을 사실상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평하고 있다.

지난해초의 첫 수소탄시험에 이어 각

종 핸드로케트발사시험에서 모두 성공하

고 고농축우라늄제조기술과 수소탄의 핵심원자들의 생산기술도 높은 수준인

데다 핵탄두폭발시험에서 까지 성공

으로써 핵억제력의 최종완성이 필요한 모든것을 사실상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평하고 있다.

지난해초의 첫 수소탄시험에 이어 각

종 핸드로케트발사시험에서 모두 성공하

고 고농축우라늄제조기술과 수소탄의 핵심원자들의 생산기술도 높은 수준인

데다 핵탄두폭발시험에서 까지 성공

으로써 핵억제력의 최종완성이 필요한 모든것을 사실상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평하고 있다.

지난해초의 첫 수소탄시험에 이어 각

종 핸드로케트발사시험에서 모두 성공하

고 고농축우라늄제조기술과 수소탄의 핵심원자들의 생산기술도 높은 수준인

데다 핵탄두폭발시험에서 까지 성공

으로써 핵억제력의 최종완성이 필요한 모든것을 사실상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평하고 있다.

지난해초의 첫 수소탄시험에 이어 각

종 핸드로케트발사시험에서 모두 성공하

고 고농축우라늄제조기술과 수소탄의 핵심원자들의 생산기술도 높은 수준인

데다 핵탄두폭발시험에서 까지 성공

으로써 핵억제력의 최종완성이 필요한 모든것을 사실상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평하고 있다.

지난해초의 첫 수소탄시험에 이어 각

종 핸드로케트발사시험에서 모두 성공하

고 고농축우라늄제조기술과 수소탄의 핵심원자들의 생산기술도 높은 수준인

데다 핵탄두폭발시험에서 까지 성공

으로써 핵억제력의 최종완성이 필요한 모든것을 사실상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평하고 있다.

지난해초의 첫 수소탄시험에 이어 각

종 핸드로케트발사시험에서 모두 성공하

고 고농축우라늄제조기술과 수소탄의 핵심원자들의 생산기술도 높은 수준인

데다 핵탄두폭발시험에서 까지 성공

으로써 핵억제력의 최종완성이 필요한 모든것을 사실상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평하고 있다.

지난해초의 첫 수소탄시험에 이어 각

종 핸드로케트발사시험에서 모두 성공하

고 고농축우라늄제조기술과 수소탄의 핵심원자들의 생산기술도 높은 수준인

데다 핵탄두폭발시험에서 까지 성공

으로써 핵억제력의 최종완성이 필요한 모든것을 사실상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평하고 있다.

지난해초의 첫 수소탄시험에 이어 각

종 핸드로케트발사시험에서 모두 성공하

고 고농축우라늄제조기술과 수소탄의 핵심원자들의 생산기술도 높은 수준인

데다 핵탄두폭발시험에서 까지 성공

으로써 핵억제력의 최종완성이 필요한 모든것을 사실상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평하고 있다.

지난해초의 첫 수소탄시험에 이어 각

종 핸드로케트발사시험에서 모두 성공하

고 고농축우라늄제조기술과 수소탄의 핵심원자들의 생산기술도 높은 수준인

데다 핵탄두폭발시험에서 까지 성공

으로써 핵억제력의 최종완성이 필요한 모든것을 사실상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평하고 있다.

지난해초의 첫 수소탄시험에 이어 각

종 핸드로케트발사시험에서 모두 성공하

고 고농축우라늄제조기술과 수소탄의 핵심원자들의 생산기술도 높은 수준인

데다 핵탄두폭발시험에서 까지 성공

으로써 핵억제력의 최종완성이 필요한 모든것을 사실상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평하고 있다.

지난해초의 첫 수소탄시험에 이어 각

종 핸드로케트발사시험에서 모두 성공하

고 고농축우라늄제조기술과 수소탄의 핵심원자들의 생산기술도 높은 수준인

데다 핵탄두폭발시험에서 까지 성공

으로써 핵억제력의 최종완성이 필요한 모든것을 사실상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평하고 있다.

지난해초의 첫 수소탄시험에 이어 각

종 핸드로케트발사시험에서 모두 성공하

고 고농축우라늄제조기술과 수소탄의 핵심원자들의 생산기술도 높은 수준인

데다 핵탄두폭발시험에서 까지 성공

으로써 핵억제력의 최종완성이 필요한 모든것을 사실상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평하고 있다.

지난해초의 첫 수소탄시험에 이어 각

종 핸드로케트발사시험에서 모두 성공하

고 고농축우라늄제조기술과 수소탄의 핵심원자들의 생산기술도 높은 수준인

데다 핵탄두폭발시험에서 까지 성공

으로써 핵억제력의 최종완성이 필요한 모든것을 사실상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평하고 있다.

지난해초의 첫 수소탄시험에 이어 각

종 핸드로케트발사시험에서 모두 성공하

고 고농축우라늄제조기술과 수소탄의 핵심원자들의 생산기술도 높은 수준인

데다 핵탄두폭발시험에서 까지 성공

으로써 핵억제력의 최종완성이 필요한 모든것을 사실상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평하고 있다.

지난해초의 첫 수소탄시험에 이어 각

종 핸드로케트발사시험에서 모두 성공하

고 고농축우라늄제조기술과 수소탄의 핵심원자들의 생산기술도 높은 수준인

데다 핵탄두폭발시험에서 까지 성공

으로써 핵억제력의 최종완성이 필요한 모든것을 사실상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평하고 있다.

지난해초의 첫 수소탄시험에 이어 각

종 핸드로케트발사시험에서 모두 성공하

고 고농축우라늄제조기술과 수소탄의 핵심원자들의 생산기술도 높은 수준인

데다 핵탄두폭발시험에서 까지 성공

으로써 핵억제력의 최종완성이 필요한 모든것을 사실상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평하고 있다.

지난해초의 첫 수소탄시험에 이어 각

종 핸드로케트발사시험에서 모두 성공하

고 고농축우라늄제조기술과 수소탄의 핵심원자들의 생산기술도 높은 수준인

데다 핵탄두폭발시험에서 까지 성공

으로써 핵억제력의 최종완성이 필요한 모든것을 사실상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평하고 있다.

지난해초의 첫 수소탄시험에 이어 각

종